

# 드디어 우완 에이스의 등장? 기대되는 KIA 브룩스

새 사령탑 윌리엄스 감독 인적 네트워크 활용 외국인 투수 영입 공들여  
빅리그서만 4시즌 뛴 브룩스, 연이은 호투로 양현종과 1·2선발 점찍어

KIA 타이거즈 우완에이스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새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30)가 연이은 호투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또 다른 외국인 투수 드류 가봉(30) 역시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지난 시즌 두 명의 외국인 투수 모두 실패했던 KIA는 새 사령탑 윌리엄스와 함께 외국인 투수도 전부 교체, 브룩스와 가봉을 새로 영입했다.

그리고 맏 윌리엄스 감독의 인적 네트워크까지 활용하는 등 일찍부터 외국인 투수 영입에 공을 들인 KIA는 아직 개막 전이지만 벌써 기대감이 역력하다. 특히 빅리그에서만 4시즌을 뛴 브룩스는 좌완에이스 양현종과 함께 우완에이스를 맡기에 충분한 기량을 선보이며 일찌감치 1·2선발을 점찍었다.

지난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자체 흥행전에 등판한 브룩스는 5이닝 2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의 빼어난 피칭을 펼쳤다. 위기가 생겨도 땅볼 유도 등으로 매끄럽게 넘어가는 능력을 보여줬다. 150km 이상의 직구는 물론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도 자랑했다. 브룩스는 앞서 열린 두 차례 연습경기에서도 함께 8이닝 동안 2실점에 그치는 등 집중력을 발휘했다.

이에 3년전 헛터 노에시-양현종 원투펀치 조합으로 통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KIA는 올해 브룩스가 헛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외국인 투수 가봉도 페이스가 올라가고 있다. 지난 5일 자체 흥행전에서 3이닝 동안 1피안타 3볼넷 5탈삼진 무실점으로 깔끔한 피칭을 선보였다. 앞서 두 차례 등판 포함 8이닝 무실점이다. 물론 몇 차례 위기에 빠지는 등 내용 면에서 합격점은 아니었으나 실점 없는 피칭으로 노련함을 과시했다.

신장 193cm, 94kg의 건장한 체격인 가봉은 메이저리그 경력이 통산 23경기 출전에 5승2패에 불과하지만 마이너리그에서는 9시즌 동안 223경기(선발 163경기)에 나서 44승5패 평균자책점 4.54라는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

미국 플로리다 스프링캠프 기간 무리하지 않고 페이스를 조절했고

이콥 터너가 15승을 합작하는데 그쳤는데 내용은 수치보다 더욱 떨어졌다. 이에 올 시즌 양현종과 함께 중심을 잡아줄 외국인 선발 기고 있다.



최근 이닝, 횡수를 늘리며 서서히 감을 잡아 실전경기에서도 제 구위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 지난해 KIA는 조 윌랜드와 제

외모에서부터 형제임을 알게 해주는 이창근(왼쪽)-이창훈 형제

전북현대에서 한술밥을 먹는 흥정남(왼쪽)-홍정호 형제

## 女프로배구 첫 7억원 선수 나오나...오늘 FA시장 개장

여자부 샐러리캡 14억원→23억원으로 상향



현대건설 이다영과 흥국생명 이재영

여자 프로배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7억원을 받는 선수가 나올 전망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KOVO대회 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다음 시즌 여자부 샐러리캡(연봉상한)을 현재 14억원에서 최대 23억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2020-21시즌에는 종전 14억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연봉 18억원과 신설된 옵션캡 5억원 등 총 23억원의 샐러리캡이 여자부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단 승리수당(최대 3억원)은 샐러리캡에서 제외된다.

이번 샐러리캡 증액으로 인해 여자부 선수 1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봉은 7억원으로 늘었다. 각 구단들은 선수 1명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연봉을 기존 팀 연봉의 25%로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선수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봉 4억5000만원, 옵션캡 2억5000만원을 더한

최대 7억원이다. KOVO는 10일부터 2주 간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에 대한 공시를 진행한다. 우선 협상 기간 없이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다.

KOVO에 따르면 FA자격이 얻은 선수는 총 38명(남자부 20명, 여자부 18명)이다.

여자부에서는 이재영, 조송화(이상 흥국생명), 이다영, 황민경, 김연경(이상 현대건설), 박정아, 문정원(도로공사), 김희진, 김수지(이상 IBK기업은행), 염혜선, 한송이, 오지영(이상 KGC인삼공사) 등이 FA 자격을 얻었다.

여자부 최대 관심은 2014년 데뷔 후 줄곧 다른 팀에서 뛰었던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한 팀에서 뛴 수 있을지 여부다. 현재 최고 연봉자인 박정아가 FA 자격을 재취득하면서 얼마나 인상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끈다.

남자부에서는 우리카드의 정규리그 1위를 이끌었던 나경복, 이수황과 박주형(현대캐피탈), 진상현, 유광우(이상 대한항공), 최홍석, 한상길(이상 OK저축은행), 박철우, 박상하(이상 삼성화재), 오재성, 신으뜸(이상 한국전력), 박진우(KB손해보험) 등이 FA 대상자다.

## 바늘귀 통과한 기문의 영광...K리그서 함께 뛴 형제들

대중들은 스타들만 기억하지만, 사실 축구선수의 길로 접어들어 프로 무대에 진입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1명만 나와도 집안의 경사나 형제가 나란히 K리그에 뛴 확률은 더 떨어진다. 그런데 그런 흔치 않은 케이스가 분명 있다.

전북현대 이범영과 강원FC 이범수는 골키퍼 형제다. 형제가 K리그에서 뛰는 것도 쉽지 않은데 포지션이 같은 것은 더 드문 일이다.

동생보다 먼저 이름을 알린 형 이범영은 2008년 부산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2014 브라질 월드컵, 2015 동아시안컵 우승 등 K리그와 대표팀을 오가며 탄탄히 경력을 쌓았다.

동생 이범수는 2010년 전북에서 프로에 데뷔했으나 경쟁한 선배들에 밀려 이렇다 할 기회를 받지 못했고 서울 이랜드, 대전 등을 거친 뒤 마침내 경남에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 2017년 경남 주전 골키퍼로서 팀의 승격 일등공신으로 활약한 이범수는 그 해 K리그2 베스트일레븐에 뽑힌 바 있다.



전북현대에서 한술밥을 먹는 흥정남(왼쪽)-홍정호 형제



외모에서부터 형제임을 알게 해주는 이창근(왼쪽)-이창훈 형제

한 팀에서 뛰는 형제도 있다. 전북현대에서 한술밥을 먹는 흥정남과 흥정호가 그 주인공이다. 형 흥정남은 2007년 전북에 데뷔 후 군복무(상주) 기간을 제외 하면 줄곧 전북에만 몸담고 있는 '원클럽맨' 이고 동생 흥정호는 2010년 제주에서 데뷔해 아우크 스투르크(독일), 장우 수닝(중국)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전북에서 뛰고 있다.

상수상무 이창근과 안산 이창훈 형제는 한눈에 봐도 형제임을 바로 알 수 있다. 너무도 닮은 두 선수의 외모 때문인데 이범규버도 비슷하고 키도 형 이창근이 186cm, 동생 이창훈이 187cm로 비슷하다.

2018년 형 이창근이 활약중이던 제주유나이티드에 이창훈이

입단하며 형제가 동시에 주목을 받았지만, 팀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던 이창근과 달리 막 신인으로 데뷔한 이창훈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 2018년 여름 이창훈은 안산으로 이적한 뒤 서서히 경기 출전 수를 늘렸고, 이후 두 형제 모두 각 팀의 주전급 선수로 활약했다.

K리그2에서 만날 이동희(제주)와 이진희(서울E) 형제도 있다. 이동희는 2018년 제주에 입단해 꾸준한 출장 횟수를 늘려나가는 3년차 수비수다.

두 살 터울 동생인 이진희는 올해 신인으로 서울 이랜드의 유니폼을 입었다. 이진희는 지난해 대학리그(U리그) 4관왕 득점왕 출신으로 올 시즌 주목받는 신인이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4.15.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투표 4월 15일(수)  
사전투표 4월 10일(금)~11일(토)  
투표 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권 연령 : 18세(2002.4.16. 이전 출생자) 이상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모두 함께 지켜요!

신분증 준비하기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발열체크 받고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두기